

'금값' 이던 배추·무 이젠 갈아엎을 판

값 하락에 해남 배추 9천t 등 산지폐기 추진...농식품부 수급 안정대책 발표

올여름 폭염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물가 당국의 골치를 썩였던 배추와 무가 겨울을 맞아 이번엔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겨울철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해남에서 배추 9000t을 산지 폐기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월동 배추·무 생산량 증가로 공급량이 많아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배추는 가을배추 남은 물량이 8만1000t에 달해 평년 6만3000t보다 1만8000t이나 많고, 지난 달부터는 날씨가 좋아 월동배추 생산량도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상품 기준) 지난달 하순 1598원에서 이달 상순 1438원, 이달 중순 1184원, 이달 하순 1027원까지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가을배추는 보통 12월 말까지 출하가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최근 가격 약세로 1월까지 출하가 밀릴 가능성이 크다"며 "외중에 월동배추와 출하가 겹치면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무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가을무는 이달 말까지 출하되지만, 내년 5월 하순까지 나오는 월동무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13.3%나 크게 늘어나 생산량이 6.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 가격은 지난달 하순(상품 기준) 572원에서 이달 중순 781원까지 올랐지만, 이달 하순 들어서 752원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배추·무 산지·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할 방침이다.

배추는 채소 가격 안정제를 통해 8000t을 출하 정지하고, 해남에서 9000t을 자체 산지 폐기한다. 산지 유통인이 2000t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배추 1만9000t을 시장

에서 격리한다는 계획이다. 무는 다음 달 초과 공급 예상량 9000t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7000t을 자율 감축하고, 2000t은 수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출하처와 출하 시기를 탄력적으로 분산해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연합뉴스



"2019년 돼지해" 2019년 돼지해(기해년)를 앞두고 27일 오전 광주 북구 어린이집 원생들이 돼지그림을 그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내 암 유병자 174만명 평생 암 걸릴 확률 36.2%

男 위암-폐암-대장암...女 유방암-갑상선암-대장암 順

국내 암 유병자가 174만명에 달해 29명 중 1명은 암을 앓거나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암 유병자는 암 치료를 받는 환자와 암 완치 후 생존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65세 이상에서는 9명당 1명이 암 유병자였다.

단, 암 유병자의 절반 이상은 진단 후 5년 내ಗೆ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 진단 후 5년을 초과해 생존한 인원이 암 유병자의 절반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36.2%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남성의 경우 위암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11년 만에 갑상선암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에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2만9180명으로 전년보다 1만2638명(5.8%) 증가했다. 남자 12만68명, 여자 10만9112명이다.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다. 이어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았다.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갑상선암 순이다. 이 중 전립선암은 2015년과 비교해 간암을 제치고 네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여자는 유방암이 가장 많아 2005년 이



후 11년간 여자 암 발생 1위였던 갑상선암이 2위로 하락했다. 무분별한 검진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갑상선암은 줄어든 반면 유방암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어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이다.

연령표준화(2000년 주민등록인구 비율 기준)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286.8명으로 전년 대비 8.6명(3.1%) 증가했다. 암 발생률은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3.0%가량씩 감소하다 이번

에 소폭 늘었다. 유방암 발생률이 1999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한 영향이 컸다. 5대 주요암(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중 2010년 이후 암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암종은 유방암이 유일하다. /연합뉴스

'올해 최고의 인물' 1위 문재인·2위 박항서

리얼미터 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최고의 인물'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이 조사에서 두 번째로 많이 꼽힌 인물은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박항서 감독이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tbs의뢰로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올해 최고의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5%가 문 대통령이

라고 답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박항서 감독(16.7%), 방탄소년단-이국종 교수(각 9.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5.6%), 축구선수 손흥민(5.5%), 서지현 검사(4.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4.5%) 등 순이었다.

문 대통령은 호남과 대구·경북, 40대 이하 전 연령층과 60대 이상에서 1위로 꼽힌 반면, 고령인 부산·경남에서는 3위에 머물렀다.

박 감독은 부산·경남과 50대 자영업, 보수층과 중도층, 한국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단독섬
바로합니다.010-6834-7400
전남,북지역/지분환영

투자자 모집
3억원 이상
경매 입찰/낙찰 물건
최하 연15% 수익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병사들 평일 일과 후 4시간 외출

내년 2월부터 월 2회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은 평일 일과를 끝내고 4시간 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7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과 관련하여는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1월까지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끝내기로 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외출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 기준으로 월 2회 이내다. 휴가지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또 내년부터 병사들의 외박 때 필수 지역 제한도 폐지된다. 외박지역의 범위는 장성급 지휘관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으로 대략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과 이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는 전면 시행시기가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된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연합뉴스

한진그룹 세모녀 명품 등 7억원 상당 밀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거액의 해외 명품 등을 장기간에 걸쳐 국내로 몰래 들여온 사실이 세관 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는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35) 대한항공 전 전무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세 모녀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구·육포 등 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의 물품 13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자를 대

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외에서 구매한 소파·탁자 등 부피가 큰 가구는 국내로 들여올 때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개인이 아닌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세 모녀는 이런 수법으로 의류·가방·반자·팔찌·신발·과일·그릇 등 다양한 물품을 밀수입했다.

인천세관은 또 총수 일가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관 당국은 총수 일가의 밀수입 지시와 업무연락, 배송 현황 파악, 국내 운반, 전달 등을 맡은 대한항공 직원 2명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함께 송치했다. 이들의 범행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을 벌여 대한항공 회사 물품 반입시 검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세관 직원 등을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광주광역시 인구조조사업지원회 광주전남지회
'돈돈'육아 성공비법
직장난치문화 제로법
수퍼맘 방지법
육아대디 지지법
직장 가족 이웃
육아후수 주의법
돈돈육아 동참법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투자·매도·교환
상가건물
특급물건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당 디펜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